랩업 리포트 기획 초안 D

1. 작성 배경

시계열 수업과 실습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파주시 관광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문서를 남기려 한다. 이번 리포트는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집중한 계획서다.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나 수치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칠지 미리 상상해보며 필요한 자원을 점검하고자 한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의 이해도를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풀어낼 계획이다.

2. 데이터 확인 계획

데이터 폴더에는 `월별\_생활인구\_LG유플러스.csv`, `월별\_관광지\_방문객추세\_LG유플러스.csv`, `월별\_지역별 검색건수.csv`와 같은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우선 각 파일의 기간과 단위를 확인해 목록을 만들고, 어떤 조합으로 비교하면 의미가 있는지 아이디어를 적어둘 생각이다. 연 단위 자료는 배경지표로, 주 단위 설문 자료는 해석을 돕는 참고용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정리는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근거 자료를 바로 제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데이터의 최신성도 함께 확인해 업데이트 주기를 스스로 정리해둔다.

3. 전처리 구상

시간 정보가 핵심이라 모든 데이터를 월 단위로 맞추는 것을 1순위로 둔다. 값이 누락된 달은 원인을 파악해보고, 필요하면 인접한 달의 평균을 참고해 채운다. 데이터의 범위와 단위를 맞춰두면 그래프나 표를 만들 때 혼란이 줄어들 것 같아 기본 포맷을 먼저 세팅하려 한다. 전처리 단계에서 만든 규칙은 간단한 문서로 남겨, 이후 반복 작업 시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예시 데이터로 미리 리허설을 진행해 예상치 못한 오류를 줄이고자 한다.

4. 분석 진행 방식

첫 번째 단계는 추세와 계절성 확인이다. 방문객 수, 생활인구, 소비지표를 시각화해 동시에 비교하고, 큰 변동이 있는 시점을 표시해두면 좋겠다. 이후 간단한 예측 실험을 통해 다음 달 방문 규모를 추정해보되,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우선한다. 설문 데이터는 정량 수치보다는 키워드 정리용으로 활용해, 보고서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덧붙일 계획이다. 분석 후에는 ‘오늘 배운 것’ 노트를 작성해 경험을 정리한다.

5. 일정 및 관리

4주 계획으로 진행하며, 주차별로 ‘데이터 파악 → 정리 → 분석 → 보고서 작성’ 순서를 따른다. 매주 중간 점검 노트를 작성해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즉시 질문 목록을 만들어 나중에 검토한다. 최종 주에는 리포트 초안과 함께 다음 단계 제안을 붙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일정 관리에는 너무 많은 툴을 쓰기보다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달력을 병행해 부담을 줄인다. 필요하면 주간 미팅 시간에 간단한 진행 상황 공유를 진행한다.

6. 기대 효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다루는 역량이 한층 나아질 것이다. 또한 향후 프로젝트 추진 시 일정과 산출물을 예측하기 쉬워져 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능력을 끌어올리고, 실제 사례에 맞춘 설명 방식을 연습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학습 과정에서 느낀 심경을 기록해두면 성장의 흐름이 더 잘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7. 참고 메모

프로젝트 관련 참고 링크와 자료는 별도의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다. 데이터 처리 중 나타난 이슈는 즉시 기록해 향후 체크리스트에 반영한다. 새롭게 필요해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분류해 다음 스프린트 계획에 추가한다.

맺음말

이번 문서는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기술 용어보다는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하려 한다. 실제 분석이 시작되면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과정 중 느낀 부분은 꾸준히 기록해, 최종 Wrap-up에서 자연스럽게 회고로 이어지도록 준비한다.